

# KC GREENHOLDINGS

2012 NEWS LETTER Vol. 29



President & CEO 이태영



임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KCGH 관계사 임직원 여러분들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1년을 되돌아 보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침체에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다시 새로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럽 발 재정위기로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부양과 긴축의 딜레마에 직면하였으며, 신흥국들도 금융긴축을 시행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1년 KCGH의 관계사들은 대부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간 한 해 되었습니다. 환경EPC Division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부진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무적인 것은, 역점을 두었던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5,838억 원의 수주고를 이루어 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 터어키,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시장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향후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미국법인인 Lodge Cottrell Inc. (LCI)는 Mr. Rich Staehle가 새로이 CEO로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미주지역의 APC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지사 (Branch office)를 운영하던 대만시장에 새로운 독립법인인 KC Cottrell Taiwan Co., Ltd.를 지난 12월에 설립함으로써, 대만 시장에서의 영업과 Customer Service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서비스 Division은 새로이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인 KC호남환경(주)을 인수하여 지역 coverage를 넓히고 KC환경건설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KC한미산업(주)은 새로운 폐수/폐유 처리설비를 준공하여 사업다각화 및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성유리(주)는 새로운 유리소재 사업인 'A Project'의 건설을 시작하여, 이제 유리병 제조를 넘어 신규 소재사업의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변함없이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신 모든 KCGH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은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고 정치/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한 해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CGH는 창립 39주년, 그리고 홀딩컴퍼니로서 출범한 지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어렵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하에서, KCGH의 모든 관계사가 운영의 효율을 높이면서 내실경영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굴하고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올해는 운영의 안정성과 새로운 미래의 개척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한 해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제 KCGH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다음 10년을 이끌어 갈 인재들을 교육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에도 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한 해이지만, KCGH의 모든 관계사가 긴밀히 협조하고 팀워크를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면, 녹색사업 분야(Green Business)에서 leading company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하여, 우리 임직원들의 성장이 KCGH 관계사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이 우리의 고객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기여함은 물론 지구의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하는 녹색 선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용의 해인 임진년 새해 아침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모든 가정에 가득한 행운을 기원하면서, 멋진 한 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President & CEO

대표이사 이태영

## KC코트렐 2012년 시무식

임진년 새해, KC코트렐 및 KC그린홀딩스 전 직원은 1월 2일 오전 9시 지하강당에 모여, 이태영 대표이사 외 임원이 참석 한 가운데 2012년 시무식을 가졌다.

특히 2011년의 국내외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KC코트렐은 창업 38년 이래로 가장 큰 수주, 약3943억(ERP집계)을 달성한 한 해였다. 이 자리에서 이태영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하여 KC코트렐 및 그린홀딩스의 장기적인 사업전망과 VISION를 제시하였다. 특히 기술이라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최대한 업무효율을 높여서 수익력을 통한 생존확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십 년을 준비해 갈 새로운 기술 시장 문화를 열자 라는 과제로 다음과 같은 소주제를 발표하였다.

### 1. 내실경영

저성장 시점에서 기존수주를 기반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수익률을 창출해서 생존력을 확보하자.

### 2. 공격적인 신기술과 새로운 고객, 새로운 시장의 확보

2012년의 재정위기전망에 경쟁사와의 경쟁격화 속, 공격적으로 신기술, 신 고객, 신시장 창출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 확보



### 3. 새로운 십 년의 준비

창립40주년을 앞두고, 다음 Generation을 육성하는 준비 및, 생존이라는 과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존재양식을 누리는 해 (임직원, 이해관계자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줄 수 있는 기업)

### 시상

CC20프로젝트 시상

1등: 광양 5소결 청정설비: 500백만원.

2등: 광양 Fe-Mn환경설비: 300백만원

3등: 대우 Eng. Merac전기집진기: 200백만원

공동 3등: Extuded Finning용 Disc 개선을 통한 Aluminum Muff. 원재료절감: 200백만원



KC그린홀딩스 지원팀 하혜진 <hyejin@kcgreenholdings.com>

### KC코트렐 POSCO 최우수공급상 수상

2012년 1월 5일 포항에서 POSCO 신년간담회가 있었다. 그리고 KC코트렐은 “2012년 설비부분 최우수 공급 사”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광을 안겼다. 간담회 주요내용에는 구매방침 소개 및 PCP 인증서 수여 그리고 감사패 수여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의 공급 사 - 설비/ 자재 각 1개의 社)



POSCO상패 및 배호성 차장의 감사편지(부록참고)

KC 제철사업부 김규백 <gyuback@kc-cottrell.com>

### KC코트렐 SK Best Supplier 수상

2011년 12월 16일에 있었던 SK송년행사에서 Best Supplier상패와 함께 부상 200만원을 수상하였다. 탁월한 품질 및 납기관리에 대한 공헌을 표한 SK건설은 KC코트렐과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SK의 Owner사인 터키의 Energisa에게 입찰진행 중이었던 투판베일리(300MW x 3 Units) 발전소의 발전설비 중 탈황설비와 전기집진기의 입찰 준비에 초기부터 지원을 해왔다.

지원을 해온 내용으로서는 가격견적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사항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검토 등 이었고 또한 Owner사인 Energisa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SK건설의 원가절감을 유도하였고, 그리고 기술적인 설명을 통하여 Owner 사인 Energisa사에게 기술에 대한 만족을 유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SK 건설에서, 당사에 대한 기술적인 만족도 및 신뢰를 갖게 되어, 당사에서 투판베일리 프로젝트의 탈황설비와 전기집진기를 수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더불어 이 사이에, 군장에너지 (G-2) 전기집진기 및 김천에너지 전기집진기를 수주 하게 되어, 최근 SK건설과 밀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프로젝트의 계약 및 수행 중에 Best Supplier를 수상하게 된 의미는 입찰 시부터 도움을 준 감사의 의미와 프로젝트의 수행을 잘 진행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 되어 진다. 또한 수주 되어진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여, SK건설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SK건설 표창패

KC코트렐 해외사업부 이정희 <j.jhlee@kc-cottrell.com>

## SDR FGD Session '11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본사 B1에서 6개 해외 법인에서 모인 8인의 KC인들이 Semi-Dry FGD 교육을 통해 향후 수주 확대의 기회를 가졌다. Introduction, Process Design, Sample Proposal CaseStudy(9Dragon, Formosa), Competitor Analysis B/F, Pulsing Sys, Ceramic Filter, Korean Culture 등의 빠듯한 일정에도 전원이 추위를 녹이는 향학열로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특히 주말까지 나온 장춘 팀의 뜨거운 열정으로, 내년 Session'12를 기대한다.

구성원 소개(왼쪽부터) :

1. Mr. Erik Johnson/Nol Tec, USA
2. Mr. Yu Jon Yeu/KC Taiwan
3. Mr. Chou Hai Ken/KC Taiwan
4. Mr. Bibhas Kumar Dey/Lodge Cottrell India
5. Mr. Roy Greaves/Lodge Cottrell Ltd
6. Mr. Do Xuan Hoi/KC Vietman
7. Mr. KS Park/KC Cottrell CTO
8. Ms. Wang Zer/KC Cottrell China
9. Mr. Dong-Myung Shin/KC Cottrell China



KC코트렐 기술연구소 이정준 <jayjay@kc-cottrell.com>

##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용 ESP 수주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011년 12월 26일 있었던 입찰에서 당사 최초로 1,000 MW 화력발전소 ESP(K-Type)를 수주하였다. 올해 들어 그간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500 MW 화력발전소 실적을 바탕으로 인도 Raipur (600 MW x 2) ESP, 베트남 Mongduong (600 MW X2) ESP, 사우디아라비아 Rabigh (700 MW x 4) ESP를 연이어 수주하며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던 당사로서는 금번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ESP를 수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00 MW ESP 시장에 진입함과 동시에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당진화력발전소는 당사가 기존에 공급하였던 1-4호기 탈황설비 및 탈질 설비 그리고 5&6호기 Ash Handling 설비와 함께 ESP 실적도 보유하게 됨에 따라 당사가 공급하는 대기분야 환경설비 전체가 설치되는 최초의 발전소가 될 것이다. 내년은 국내 1,000 MW급 화력발전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로 금번 수주한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ESP와 올해 중반에 계약 체결한 영흥화력 발전소 (870 MW X 2) FGD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도록 모든 역량이 집중 될 것이다.



당진화력발전소

KC코트렐 발전민수사업부 원종웅 <jongoung@kc-cottrell.com >

## 대만법인 개업식

KC-Cottrell Taiwan 개업식이 열렸다. 다음은 최희규 대만 법인장의 현장 리포트이다.

2011년 12월 23일 Taipei에서 대만법인(KC Cottrell Taiwan)의 사무실 개업식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 이웃집처럼 오고 갈 수 있다지만, Christmas를 앞두고 한국본사에서 이태영사장님, 신영만부사장님, 송우일상무님, 안세홍팀장님과 강준기팀장님이, 중국 북경에서 박승원전무님과 장춘에서 차순근 법인장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고, 발주처인 TPC의 Mr. Yang PM과 E&C의 Mr. Sung PM외 많은 관계사분들이 참석하여 개업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KC가 20년 전부터 대만에서 Project를 수행하여 몇몇 아는 지인의 인연도 있지만, 저와 대만직원 4명이 KC Taiwan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부딪힐 많은 낯선 일들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KC Taiwan이 현재는 본사 및 KC Network의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중심이 되는 KC의 법인으로 성장하여 본사의 생각을 지원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만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대만 내 외국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KC network 관계사분들께서 대만 Taipei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KC TW의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소와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 14F-5, No.77, Sec. 1, Xintai 5th Rd., Xizhi Dist., New Taipei city Taiwan

전화 : +886-2-2698-8300(Office), +886-9-3237-3838(Mobile phone)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대만 법인장 최희규

-



대만법인 개업식 기념사진

## KC Cottrell Vietnam 옥내, 옥외 광고

12월 KCVN에서 새로운 광고를 전시하였다.

옥내 옥외로 KC를 알리는 작업이 완성되었으며 현재 노이바이 공항에서 시내방향으로 고가도로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어, 광고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옥내광고 - 6층 사무실 입구

2. 옥외광고 - 크기:10M(가로)\*1.8M(세로)



KC코트렐 베트남 옥내광고





KC코트렐 베트남 옥외광고

“지난 한해도 KCVN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KCVN 가족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목표 달성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C Cottrell Vietnam 염 동균 배상

KC Vietnam 염동균 < dgyeom@kc-cottrell.com >

## KCMS Workshop

KCMS는 지난 12월 2일 두원 공대 철산 학술 정보관에서 KCMS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번 WORKSHOP은 직원과의 대화, 부서간 원할 한 업무 소통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WORKSHOP은 오전에는 행복경영 강연과 부서간 원할 한 업무소통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오후에는 발전민주사업부와 JORD International 까지 참석하여 고객과의 시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상호간의 토의를 통해 KCMS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WORKSHOP은 KCMS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며 고객의 소리를 통해 앞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하며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WORKSHOP은 KCMS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며 고객의 소리를 통해 앞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하며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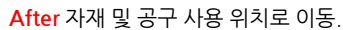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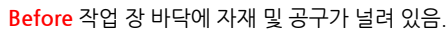
KCMS 운영혁신팀 김정훈 <jeonghoon@kc-cottrell.com>

## KCMS 5S 운동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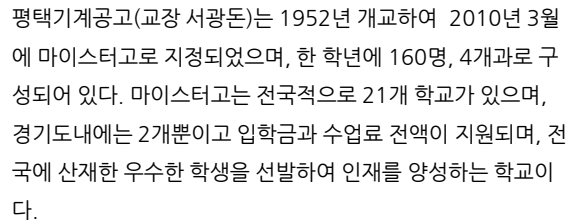
KCMS는 11월부터 동반성장 관련으로 서부발전과 한국생산성본부의 도움을 받아 5S운동을 새롭게 재개함과 아울러 KCMS-5S 프로세스 운용 지침을 제정 하였다. (KCMS-5S 프로세스 운용지침서는 KCMS 업무 게시판에 공지참조)

5S 운동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혁신운동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원가를 절감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KCMS는 수립한 5S 프로세스 운용 지침서에 따라 협력업체와 함께 활동구역을 선정하여 매월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행 시기가 짧지만 개선 된 사항이 눈에 보이는 만큼, 앞으로 꾸준히 시행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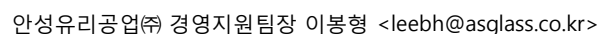
지난 12월 15일 안성유리는 마이스터고\*(현장중심의 숙련된  
경력개발 등을 통해 기술명장'Meister'을 육성하는 전문고)인  
평택기계공고와 산학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



금번 산학협력체결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공동개발하고, 정보교환 및 상호취업 지원, 교원(교사)의 신기술 현장 연수, 위탁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실시하며, 당사의 병역특례업체 지정과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계기로, 인력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이스터고란?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제시되어 있다.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지난 2011년 12월 15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성웅 광양시장,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공사 사장,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 KC코트렐 이태영 사장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태양광 발전소(전남 광양시도 이동 소재) 준공식을 가졌다.

국내에서 항만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양지역은 일조량이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데다 컨테이너부두 CFS(화물 조작장) 등 넓은 지붕을 활용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적격지로 평가 받았습니다.

이번 공사의 의미는 광양항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1단계 사업으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CFS 8개 동과 동 측 배후물류단지에서 마련된 국제물류센터 지붕에 결정질과 유니솔라 박막형 태양광발전시설을 동시에 설치한 첫 번째 사례로 총 공사비는 약 70억 원 가량이 투입되었으며, 지붕형 태양광발전소로는 국내 최대인 2.3MW 규모로 우리가 처음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주하여 자체 수행한 첫 프로젝트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감사패

## 원자재 시장

[열연] 열연 3사, "이번엔 진짜 오른다"

1월 중순 이후 상승에 무게...

### ◆ 국제가격부터 오르고 있다

열연 생산업체들이 지적하는 바닥 터닝의 징후는 국제가격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 아르셀로미탈, AK스틸 등은 11월 이후 세 차례 인상을 했다. 인상폭이 100달러에 달한다. 미국 시중 가격도 70~80달러 올랐다. 평균 가격은 톤당 760달러다. 유럽 시장 가격도 40~50달러 가량 올랐다. 톤당 480~490유로다. 달러기준 620~630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중동 지역도 30~40달러 오른 660~680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터키 러시아 등도 인상을 하거나 인상을 준비 중이다. 동아시아지역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반등 기운이 강하다. 현대제철 등 국내 열연코일 수출업체

들은 2월 선적분에 대해 톤당 20~30달러 가량 올렸다. FOB 650달러까지 인상을 한 것. 국내외 열연코일가격이 지난 수개월간 하락한 것도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지난 가격 하락기간은 5개월 이상이다. 통상 가격 하락 사이클보다 1~2개월 더 길다. 생산업체들이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사이클이다. 열연생산업체 관계자는 "사이클만 놓고 본다면 상승할 때도 된 것 같다"며 "중국산의 경우 추가 오퍼가격 하락 등이 없는 것도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 ◆ 시중 재고 조정도 끝나가고 있다

열연코일 생산업체들에 따르면 시중 재고 조정도 거의 마무리됐거나 적정 수준 이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중 재고가 실수요업체들이 경우 긴급재 주문량이 최근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생산업체의 판단이다. 재고가 부족해 결품 사이즈와 강종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냉연 강관 등 주요 수요업체들의 재고가 바닥 수준"이라며 "최근 3~4개월간 구매량을 줄인 것이 재고 조정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전제된다면 빠른 속도로 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냉연] 냉연유통업 "바닥찍고 반등 움직임"

- 판매점들, 1월 Kg당 30~30원 수준 인상 계획  
유통재고 감소, 제조사 설비수리 감소효과, 고객사 재고조정 등  
호재

[스틸데일리 01월04일]

냉연유통시장이 길고 길었던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유통가격 상승세가 보이지는 않지만 상승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냉연도금재 유통재고는 여전히 많은 상태지만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철강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11월 냉연도금재 유통재고는 82만톤으로 전월비 5.6% 감소했다. 지난 2월 67만1,000톤에서 10월 86만9,000톤까지 증가했다가 11월에서야 감소하기 시작, 12월과 1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포스코 냉연코일센터 등 판매점들은 연말 재고조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제조사에 4분기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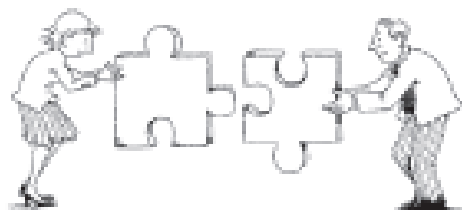
물량 주문을 상당폭 줄이면서 현재 적정수준까지 재고수준을 떨어뜨린 상황이다. 냉연SSC들은 상황개선 기대감이 낮은 1분기에도 유통주문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냉연유통업계 관계자는 "설날을 전후해 대형 판매점들을 중심으로 Kg당 20~30원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1월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제조사 설비수리로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사들의 재고조정도 1월 말이 되면 완료돼 구매에 나서면서 설 명절 후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STS] STS 유통가격, 일단 오를 일단 남았다?!

- 포스코 1월 할인을 축소시 유통가격 인상은 불가피  
- 니켈價 강보합장, 해외 오퍼價 인상 등 분위기 잡힐 경우 단가 인상

[스틸데일리 01월04일]

포스코의 1월 출하분 할인을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유통업계는 판매단가를 인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1월 첫째주는 신년 영업을 재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 등에 분주한 모습이며, 대다수의 대형코일센터들은 매입단가 상승에 따라 유통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는 업체들마다 살짝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중으로 대다수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단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단가 인상폭은 kg당 50~100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신년 들어 니켈가격도 나름 강보합장을 시험하고 있는데다가, 해외 오퍼가격도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국내외 시장분위기가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거의 확산되면서 조만간유통가격의 인상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단가는 지난해 연말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304 열연의 경우 kg당 평균 3,300원대 수준, 304 냉연은 kg당 3,350원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1월 초순까지는 구단가와 혼재되어 출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니켈 강보합장 시험 등 시장의 분위기만 어느 정도 잡혀준다면 유통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상승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니켈가격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1만 9천 달러대를 넘어선다면, 유통가격을 인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수요가들의 매입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가 인상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감사편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설비구매그룹 배호성 Senior Manager입니다. 저는 광양 4열연 제강설비 집진기 계약 건을 통하여 KC코트렐(주)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고, 광양 1~4 소결 공정집진기 계약 건을 진행하면서 귀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2년 임진년을 맞이하여 포스코의 우수 설비공급사인 귀사의 지난해 품질개선과 원가절감 등의 성과에 대하여 담당 Buyer로써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는 유럽발 경제위기 및 세계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 4열연 제강용 집진기를 국산화하고, 포항 STS/ 제강 EBF 집진기 특허개발을 통하여 집진성능을 개선하여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투자비를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EP집진기 분야의 World Best World First 달성을 위하여 광양 1~4 소결 공정집진기 성능개선 Test Tower를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는 많은 설비공급사의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포스코 패밀리사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KC코트렐(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라며, 더욱 건승하시고 건강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1 주식회사 포스코

구매지원센터 설비구매그룹 배호성 Senior Manager 올림.



## 자랑스러운 안성인

‘기술연구소 이선영상무 IGM 9 - Week MBA 과정 수료 및 중소기업청 표창수여’



기술연구소상무 이선영

당사 기술연구소 이선영상무는 지난 8월 기술경영사 자격취득에 이어, IGM 세계 경영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속성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과정인 ‘9-Week MBA를 수료하였다. 또한 이번 MBA 과정에서 30명의 교육생 중 우수생 3명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뿐 아니라 2011년 12월 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6회 유리심포지엄에서 평소 혁신적인 사고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중소기업청장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세라믹학회 유리부회/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 공동주최하여 산학연이 함께하였다)



경영지원 이봉형 팀장 휴넷 MBA졸업 & 기술평가사 자격취득’ 경영지원팀 이봉형팀장이 업무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지난 2월부터 7개월간의 휴넷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MBA 전 과정을 이수하여 수료 하였다 아울러 지난 12월 22일에는 기술평가사 자격도 함께 취득하였다.



경영지원팀장 이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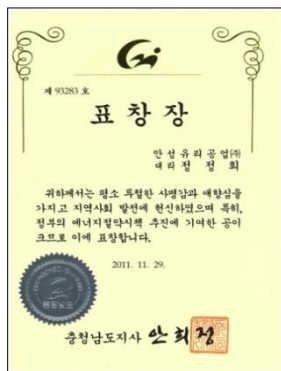


## ‘요로 정정희대리 에너지 절약 유공사원 선정’

2011년 11월 29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2011년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가 열렸다. 11월 에너지의 달을 맞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당사 생산팀 요로에서 근무 중인 정정희 대리가 에너지절약 유공사원으로 선정되어 충남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항상 도시가스시설관리와 보일러 사용시설 등 에너지관련 업무에 매진한 결과로 이 상의 의미가 더 깊었다. .



생산팀 요로대리 정정희



안성유리공업(주) 경영지원팀 김찬희 <chkim@asglass.co.kr>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오는 2015년까지 브라질 북동부에 있는 세아라주 페셀 산업단지에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게 된다.

정동화 사장은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는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메가(mega) 프로젝트다. 계약금액으로는 국내 건설 회사가 수주한 최대 규모의 제철플랜트 공사로서 한국 건설사의 큰 자부심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이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 배경은, 국내외를 통틀어 제철-제강-연주 등 일관제철소의 모든 공정에 대해 설계-구매-시공-시운전까지 EPC 턴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건설사이기 때문이다.

발레와 동국제강은 이 사업의 초기단계이던 2009년부터 포스코건설에 사업참여를 적극 요청해왔고,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됐다.

### ▷ 포스코신문(12/22, 제899호)

#### [해외 최초 일관제철소 건설... 용의 기상으로 새해를 열다]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건설현장을 비롯해 인도 CGL, 멕시코 2CGL, 중국 광둥CGL, 터키 스테인리스강연공장 등 포스코패밀리의 글로벌 건설현장이 2012년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건설요원들도 새해를 맞아 포스코 최초의 해외 일관제철소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포스코의 성공역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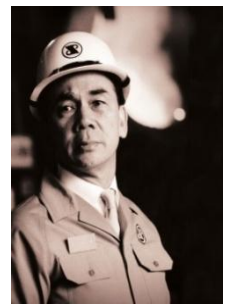
파일 항타와 콘크리트 타설이 한창인 일관제철소 건설현장은 현재 전체 공정의 10%를 완료했으며,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 포스코신문(1/5, 제901호) 철강왕 큰 별이 지다

(1927 - 2011)

‘철의 사나이’, 故 박태준 명예회장

당신은 가셨지만  
영일만의 황량한  
모래벌판에서 세계적인  
철강신화를 일구어 낸  
우향우 정신과 제철보국의  
각오는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 제철소식

### [포스코건설, 브라질 일관제철소 공사 수주]

합작법인 CSP사와 계약 체결...2015년까지 연산 300만톤 규모 건설

포스코건설(사장 정동화)이 43억4000만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브라질 일관제철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내 건설 회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제철플랜트 공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12월 16일 오후 2시(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에서 브라질 최대 철강석 공급사인 발레, 동국제강,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CSP사와 일관제철소 건설공사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